

2024. 4. 1.(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 홍 찬	2133-6405
-------	-------	-----------

현장홍보팀장	남 경 식	2133-6415
--------	-------	-----------

홍보전략팀장	유 병 천	2133-6450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관련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gov/seoul-dream-board	
--------	---	--

“새싹을 밟을까봐, 아이는 강충강충 걸었다”

서울시, 2024년 봄편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개

- 4.1.(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새로운 문안으로 단장한 봄편 서울꿈새김판 게시
- 봄편 공모전 1,061건 문안 접수...게시작 최정우 씨 작품 포함 10편 선정
- “움터오는 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은유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한 문안”

4월 1일(월) 서울시가 가을을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이하 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서울시는 ‘희망찬 정취를 담은 글귀’를 주제로 2024년 봄편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1,061편의 문안이 접수되었으며, 시는 문안선정위원회를 통해 1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시는 선정작 중 “새싹을 밟을까봐, 아이는 강총강총 걸었다”를 꿈새김판에 맞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봄편으로 게시했다. 당선자 최정우씨는 문안을 통해 “혹시나 돌아나는 새싹을 밟을까봐 어색한 걸음으로 걷는 아름다운 동심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 또한 게시작을 포함하여 다른 선정작 “옷도 이불도 가벼워졌는데, 마음만 무거울 필요 없지”, “손꼽아 기다렸어요. 손잡고 걸을까요?”도 코엑스 스퀘어 미디어, 신세계본점 대형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 전광판 및 보유 홍보 매체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게시작에 대해 “움터오는 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은유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는 문안이어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김홍찬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새싹이 돋는 봄을 꿈새김판과 함께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에게 전했다.

붙임: 2024년 봄편 서울꿈새김판 이미지



< 2024년 봄편 서울꿈새김판 이미지 >



< 설치 시뮬레이션 >